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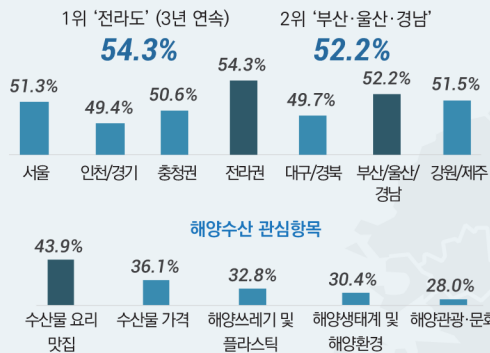
| 2021 해양수산과 국민 인식 |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한 「2021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사와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, 성, 연령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.

‘지역별’로 본 해양수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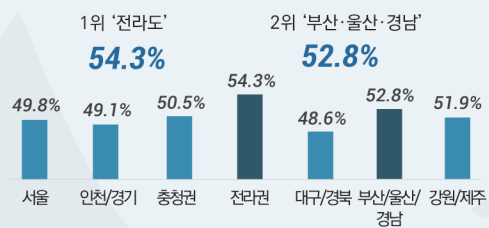
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

· 바다와 인접한 ‘전라권’과 ‘부산/울산/경남’이 타 지역에 비해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전라도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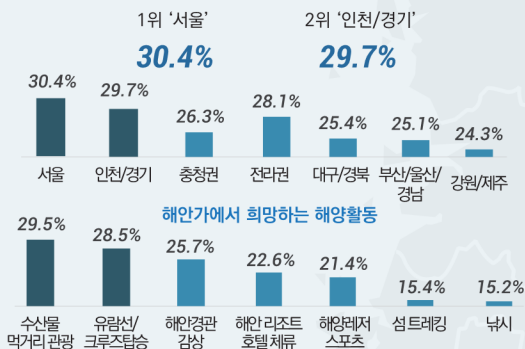
해양수산 정책 체감도

· ‘21년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는 ‘전라권’과 ‘부산/울산/경남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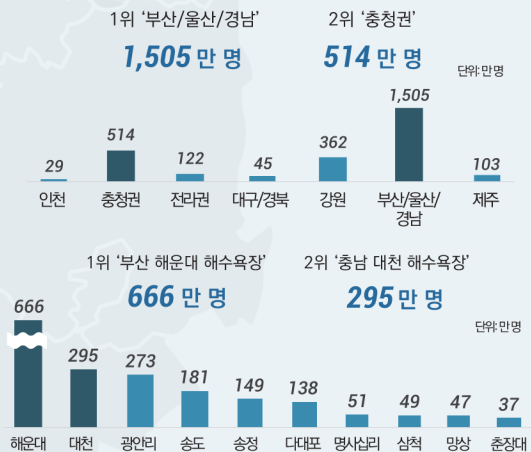
최근 1년간 해양관광활동 참여 비율

· ‘수도권’ 지역이 해양관광 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해안가 희망 활동으로는 ‘수산물 먹거리 관광’, ‘유람선/크루즈 탑승’이 1, 2위를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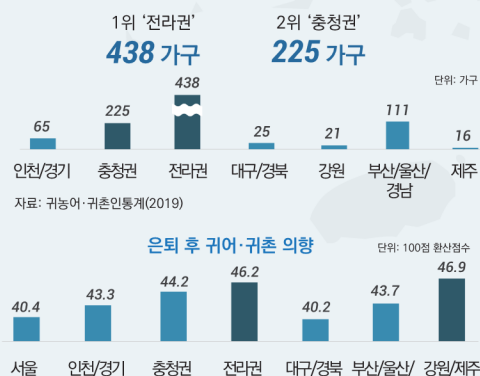
많이 찾은 해수욕장 순위

· ‘20년 기준 ‘부산/울산/경남’과 ‘충청권’ 지역이 해수욕장 방문객이 가장 많았으며, ‘부산 해운대 해수욕장’과 ‘충남 대천 해수욕장’이 1, 2위를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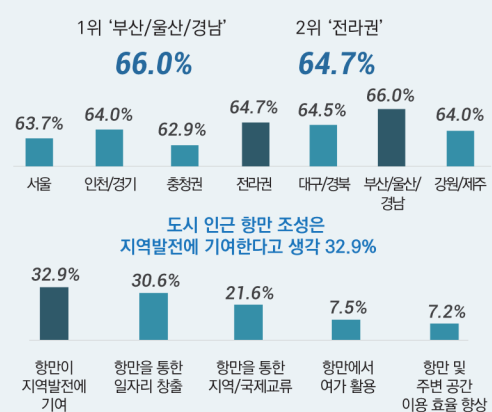
시·도별 귀여가구

· ‘19년 기준 ‘전라권’과 ‘충청권’ 지역이 귀여가구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, 귀여·귀촌 의향은 ‘강원/제주권’이 가장 높게 나타남



도시인근 지역 향만 조성 찬반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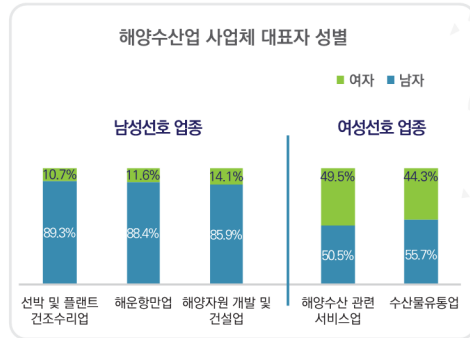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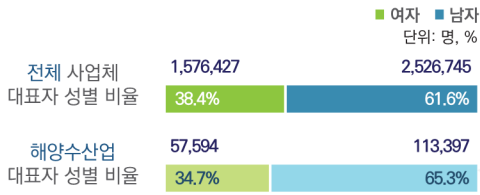
· ‘부산/울산/경남’과 ‘전라권’ 지역이 향만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향만 조성이 ‘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’에 기여한다고 생각



‘성별’로 본 해양수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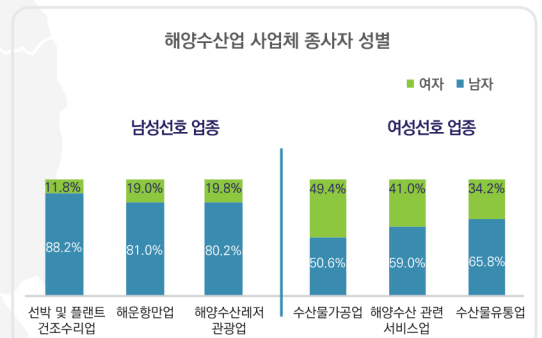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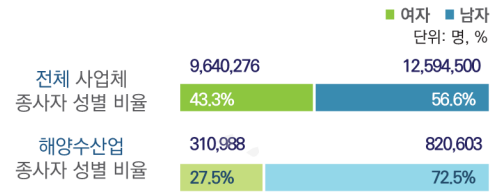


• 해양수산업 사업체 대표자의 2/3은 남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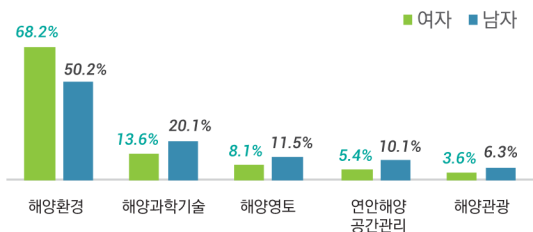
자료: 해양수산부, 해양수산업 통계조사

•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3/4이 남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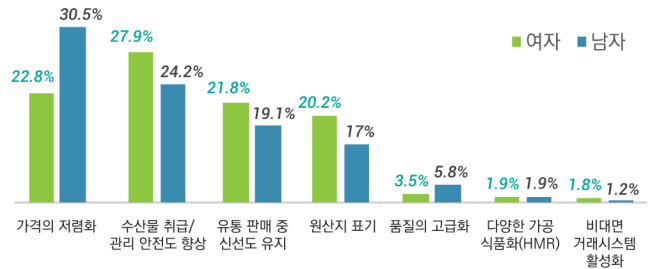
• 해양분야에 연구 시급성 1위 남녀 동반 ‘해양환경’

– 여성은 해양환경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, 남성은 해양과학기술,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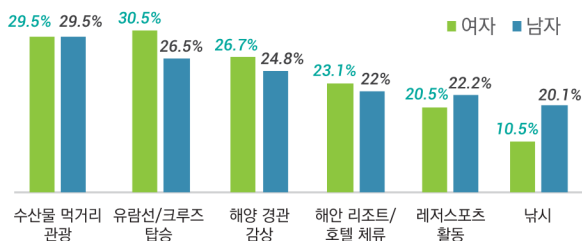
•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개선과제, 남성은 ‘가격저렴화’, 여성은 ‘수산물 안전’

– 여성은 수산물 취급/관리 안전 향상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, 남성은 수산물 저렴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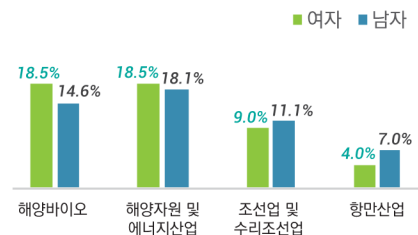
• 바닷가 희망 대표 여가 활동은 ‘수산물 먹거리관광’, ‘유람선/크루즈 탑승’

– 바닷가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여성은 해안리조트 호텔체류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해양 레저스포츠와 낚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



•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?

–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를 해야한다면 여성의 경우 해양바이오, 해양자원 및 에너지산업 개발 등 ‘신산업’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
– 남성의 경우는 조선업 및 수리조선업, 해운항만산업과 같은 ‘전통산업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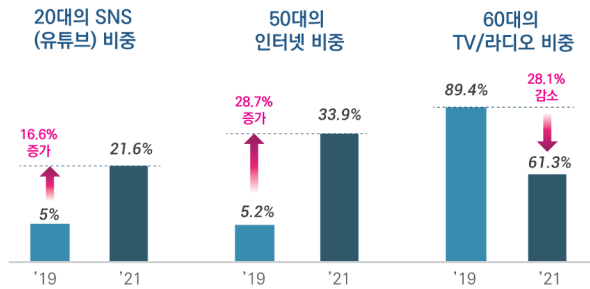


‘연령별’로 본 해양수산



• 해양수산 정보 접촉 경로

- 해양수산 정보 접촉은 인터넷 사이트(74.1%), TV/라디오(72.6%)가 높은 비중을 차지
- '19년 대비 20대는 SNS(유튜브), 50대는 인터넷 비중이 증가한 반면, 60대의 TV/라디오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

• 연령별 좋아하는 수산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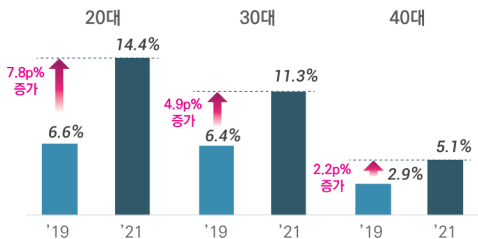
〈좋아하는 수산물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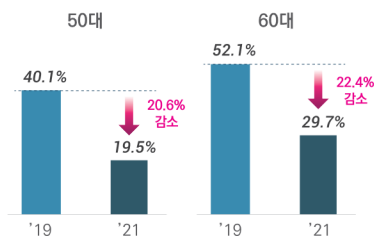
• 수산물 취식 경로

- 수산물 취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구입 후 가정에서 취식이 가장 높으며, 특히 최근 '21년 코로나19로 인해 20~40대의 배달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

〈20~40대 배달 이용 비중 변화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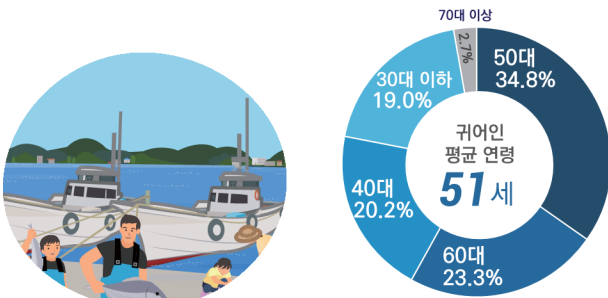


〈50~60대 전통시장 이용 비중 변화〉



• 귀어인 평균 연령은 51세

- 50대 이상이 전체 귀어인의 60.8%를 차지하며, 평균 연령은 51세
- 50대는 어촌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선호하며, 20대는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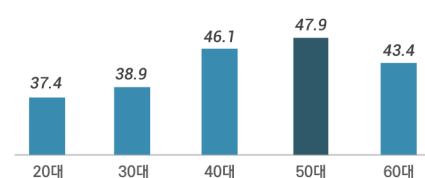
자료: 귀농어·귀촌인통계(2019)

• 귀어·귀촌 의향은 50대가 가장 높고, 20대는 최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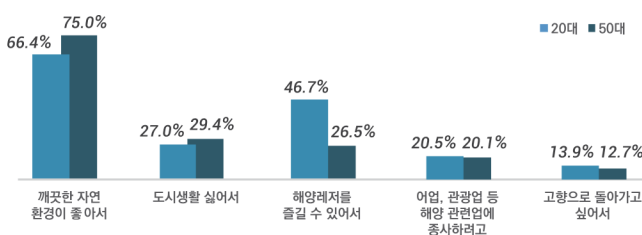
- 귀어·귀촌 의향은 50대까지 점차 상승, 60대 이상에서는 하락
- 50대는 귀어·귀촌 정보 부족, 20대는 인간관계의 외로움과 수산업 일의 고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〈은퇴 후 귀어·귀촌 의향〉

단위: 100점 환산점수



〈귀어·귀촌 하려는 이유〉



〈귀어·귀촌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〉

